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걸기대회 20일 개최

광주일보사 주관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기념 마라톤·건강걷기대회가 오는 20일 오전 9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작된다. 이번 대회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출발해 서창방범초소 앞을 돌아오는 하프코스(21.0975km)와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걷는 건강걷기(4.5km) 두 종목으로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지난달 31일 접수를 마감했다.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기념품, 완주자에게는 완주기념품을 각각 지급한다. 하프코스는 1~44위까지 시상하며, 행운상은 30명에게 돌아가게 된다. 건강걷기는 행운상 비율을 높이고 대회장 주변과 코스 중간중간에 이벤트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활기찬 레이스 건강 펄펄

“건강을 함께 지켜요”

■정남진장흥마라톤클럽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 전남의 대표적인 마라톤동호회인 정남진장흥마라톤클럽(회장·김한석·이하 정남진팀)의 슬로건이다. 정남진팀은 이번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걸기대회에 회원·가족 등 무려 90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장흥지역 마라톤 클럽이었던 장흥마라톤과 정남진장흥마라톤클럽이 통합해 정남진마라톤클럽으로 재탄생한 이후 매년 회원을 늘려오고 있다. 통합 전 20여명에 불과했던 회원이 4년새 9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달리면서 개인의 건강

유지 뿐만 아니라 장흥군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통합이후 조직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온 정남진팀은 올 상반기 중 전국 5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정남진 대한민국 불꽃제 등 각종 군 행사를 알리는 뜨거운 애항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마라톤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회원·가족 90여명 참가

매년 10개 대회 정도 참가해온 정남진팀은 대회마다 참가회원 전원 완주를 목표로 매우 이틀씩 꾸준히 훈련해 오고 있다.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전에 사자산·장흥댐 등을 2~3시간씩 달린다. 또한 이들은 매월 한번씩 셋째주 일요일 오후 3시에 모여 3시간씩 운동하는

‘1333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렇듯 꾸준한 훈련으로 회원들의 기량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 팀내 염성열(45)·김호국(47)씨는 SUB-3(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내에 완주하는 것) 달성자이다. 또한 회원 8명(남자 7명·여자 1명)이 몰려 2개의 울트라대회서 완주해 정동진팀의 위상을 한껏 올려놓았다.

친목다지며 장흥군 홍보도

특히 여자부에선 김순일(49)·조수경(37)씨가 참가대회 마다 상위권에 입상하는 놀라운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김삼환(45)·김형철(42)·신승규(44)씨는 SUB-3를 목표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특히 김순일씨는 남편 김안근(49)씨와 함께 달리는 부부마라토너로서 주위의 부러움을



건강키우기 뿐만 아니라 군정홍보를 위해 달리는 정남진장흥마라톤클럽은 이번 대회에 90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친목과 화합을 다질 계획이다.

사고있다. 팀내 말형으로 마라톤 8년차인 노옥기(58)씨는 주로 100km 이상의 울트라 대회에 출전하며 강철 체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른바 ‘슈퍼맨’이다. 팀 홍보부장을 맡고있는 박상열(52)씨는 자비로 회원들의

유니폼을 구입하는 등 팀내에서 인심 좋고 유머가 풍부한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다. 정동진팀을 이끌어 오고 있는 김한석(51) 회장은 “회원들간의 끈끈한 정으로 형제같은 우애를 나누며 달리기를 즐기고

있다”면서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회원들끼리 서로 격려해주면서 운동 못지않게 친목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며 팀의 결속력을 강조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KIA 질주엔 두 영웅 있었다



(이종범)

‘불혹 투혼’ 이종범 후배 다독이며 통산 21번째 1,500경기 출장 눈앞

‘에이스 본색’ 윤석민 2년연속 두자릿수 승·방어율왕 도전

장에 도전한다. 후반기 든든한 피칭으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윤석민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에 도전한다.

지난 6월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최소 경기 500도루, 1000득점의 위업을 달성했던 이종범은 이번주 1천500경기 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종범은 1993년 해태 유니폼을 입고 프로야구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후 올해로 17년째 프로야구 무대를 누비고 있다. 대졸출신에 1998년 일본에 진출하면서 2년6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시간은 ‘야구천재’ 이종범을 막지 못했다.

은퇴 논란을 딛고 화려한 2009년을 보내고 있는 이종범은 전반기 체중범·이윤규·김원섭의 줄부상속에 텅비어버린 외야를 지키며 올시즌 108경기에 출전했다. 앞으로 3경기에 더 이름을 올리게 되면 통산 21번째로 1천500경기 출장한 선수가 된다.

‘돌아온 에이스’ 윤석민은 팀 사정으로 숨겨두었던 개인 기록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민은 초반 부진과 한기주의 난조속에 마무리 보직을 맡느라 뒤늦게 선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특유의 배짱과 현란한 투구로 어느새 9승을 채웠다.

지난해 14승으로 팀 내 유일하게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했던 윤석민은 2년 연속 10승에 도전한다. 윤석민은 선발로 돌아온 후 11번의 등판에서 패 없이 8연승을 달리며 팀의 1위 행보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번 주말 두산전에서 윤석민이 10승을 채운다면 개인은 물론 1위 독주자인 KIA는 10승 투수 4명을 보유한 ‘투수 왕국’으로도 이름을 높여가게 된다.

윤석민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시즌 마지막까지 SK 김광현과의 숨막히는 방어율싸움을 했던 윤석민은 2년 연속 방어율왕이라는 목표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지난달 30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윤석민은 1회부터 실점을 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노련한 피칭으로 더 이상의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키며 7이닝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이날 7이닝 등판으로 마침내 정규이닝을 채운 윤석민은 2.79의 방어율을 찍으며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김광현(2.80)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바로 방어율 부문 1위가 되었다.

시즌 초반 주전들의 부상과 부진 속에 흔들리던 팀을 지탱한 두 영웅의 도전에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석민)

정수근 또 음주 물의... 롯데 퇴출 결정

음주행패 논란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롯데 자이언츠의 정수근이 팀에서 퇴출됐다. 롯데는 1일 “정수근이 음주 폭행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수차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바 있고, 징계에 해체 된지 한 달도

안돼 또 다시 물의를 빚어 구단의 명예를 실추 시킨 만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롯데는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음주를 한 차체가 선수 신분을 망각한 행위다”며 “또다시 구설수에 휘말려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음주, 행패 신고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퇴출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4년 해운대에서 시민에게 방망이를 휘둘러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정수근은 작년 7월16일 새벽 만취한 채 경비원

과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다음날 무기한 실격 처분을 받았다.

정수근은 지난 6월 롯데 구단의 징계 해제 요청과 KBO의 해제 결정으로 1년 만에 팀에 복귀했고 393일 만인 8월12일 그라운드에 돌아온 뒤 롯데의 2번 타자 겸 좌익수로 출전해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군단 이번엔 캐나다 정복

신지애·위성미·이미나 등 LPGA 加오픈 우승컵 사냥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이번 시즌 7승을 합작해낸 ‘코리아 시스템’이 이번엔 장소를 캐나다로 옮겨 또 한 차례 우승컵 사냥에 나선다.

3일(한국시간)부터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프리디스 그린골프장(파71·6천427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캐나다오픈은 2005년 이미나(28·KT)가 우승을 차지하는 등 한국 선수들이 비교적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던 대회라 8승 합작에 대한 기대를 부풀릴 만하다. 선두 주자는 역시 올해 7승을 거둬들인 젊은 세대들이다.

지난주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1위에 2타 뒤진 공동 4위에 오른 위성미(20·나이키골프)가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할 지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미국-유럽 여자프로 대항전인 솔하임컵에서 맹활약을 계기로 상승세를 탄 위성미는 지난주에 이어 LPGA 인

터넷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캐나다 오픈 우승자 예상 설문’에서도 49%의 지지를 얻으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만큼 팬들의 기대가 크다는 수치다. 신지애(21·미래에셋)와 벌이는 신인왕 경쟁에서 408점이나 뒤져 있지만 신지애가 세이프웨이 클래식 공동 65위에 그치는 등 앞으로 상승세와 하락세가 엇갈리다면 추격에 시동을 걸 어볼 만도 하다.

2005년 챔피언 이미나도 이 대회에 네 차례 출전해 우승 한 번을 포함해 10위 내에 세 번이나 드는 등 강한 면모를 보여와 지난주 세이프웨이 클래식 챔피언 허미정(20·코오롱) 등과 함께 우승 후보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1타 차 단독 2위에 올랐던 박세리(32)도 이 대회에 7번 나와 4차례 톱10을 기록했지만 지난주 대회에서 1라운드만 마치고 기권해 컨디션 회복 여부가 변수다. 삼급과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모두 크리스티 커(미국)에 뒤진 2위를 달리고 있는 신지애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이다. /연합뉴스

프로 24년차 이영미 시니어 투어 첫승

KLPGA 강산배 우승

프로 24년차 이영미(46·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강산배 동아회원권그립 시니어투어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영미는 강원도 원주 센츨리티21 골프장(파72·5천909야드)에서 열린 시니어투어 5차 대회 마지막날 6언더파 66타를 쳐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로 정상에 올랐다.

1985년 KLPGA에 입회한 이영미는 국내에서 3승, 1987년 일본으로 넘어가 8승을 거둔 베테랑 골퍼로 지난 해부터 시니어투어에 참가해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형일(45)이 최종합계 2언더파 142타로 2위, 김순희(42·기가골프)가 1언더파 143타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순희는 시니어투어 삼급왕에 올라 내년 정규투어 전반기와 하반기 각각 2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남지민 드림투어 우승

남지민(19·하이마트)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그랜드 드림투어 10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남지민은 충북 청원 그랜드 골프장(파72·6천50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1타를

줄여 함께 10언더파 134타로 2위 이명환(19·호반건설)을 5타차(5언더파 139타)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2008년 국가대표 삼비군 출신 남지민은 드림투어 첫 우승을 올리며 조윤지(18.켈러웨이)를 제치고 삼급랭킹 1위로 올라섰다.

드림투어 11차전은 전남 무안 골프장으로 장소를 옮겨 1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연합뉴스